

전산투자와 전산비용

배 근 완

(한국인포네트 상무이사)

지난 여름 유럽출장 교육중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페테르브르그(구 레닌그라드)를 처음으로 약 일주일가량 방문하였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칠려면 1시간이상 줄을 서야 했는데 입국수속용 전산터미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대기시간은 수작업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모스크바의 호텔에서 환전을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환전하려는 외국인의 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고 환전영수증을 일일이 펜으로 수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다.

나는 전산으로 자동화가 되어있지 않은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당시 환율은 9,100 - 9,400루블/달러 였는데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1991년 페레스트로이카(개혁)시 170루블/달러에 비해 50배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다.

공산주의 경제는 무너지고 정부가 망해 물자부족으로 배급도 끊어지고 월100불-300불/1인 정도를 벌기위해, 가정에서는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기위해 전가족이 직업전선에서 뛰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급료도 체불할 정도인데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투자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의 승용차 현대의 아반테와 대우의 씨에로를 본적이 있었는데 새것이어서 그런지 너무 멋있고 외국에서 보아 애국심이 발동했는지 대단히 반가웠다.

소련에서는 20년전에 유럽의 자동차회사의 기술로 개발 생산하는 '라자'라는 국산차가 있는데 그동안 개량을 하지않아 우리나라의 현대/대우자동차와는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제품의 품질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모스크바 시내에서 많이보이는 소형 승용차 '라자'는 전자식엔진이 아니어서 소음도 크고 수동식이고 더구나 대부분 10~20년 정도 사용되어 굴러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낡아 웃음이 나올지경이었다. 그런데 소련의 사람들은 6-7년된 중고차를 새차로 인정할 정도로 자동차를 상당히 아껴쓰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계부품이 고장나면 정품이 아니더라도 기계로 제작하여

쓰고 문짝도 페인트색이 틀리는데도 그냥 끌고 다니고 엔진 오일은 스스로 갈고 필터는 떨어져 계속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러시아의 피터대제는 스웨덴에 대항하기 위해 1703년 발틱바다로 나가는 네바다강 하류에 <유럽의 창문>이라는 페테르부르크를 10여년간 건설하였는데 시인 푸시킨은 이 도시를 <젊은 왕비>에 비교하였고 모스크바를 늙은 과부와 같다고 하였다.

거의 삼백년전에 건설된 도시인데도 부실공사의 흔적이 없이 아직도 5-6층 건물들이 건장하고 아름답게 버티고 있는것은 믿을 수 없었고 신기하기만 하였다.

아울러 소련의 파산지경의 경제후퇴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용 무기의 연구/개발/생산기술은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놀랄정도라고 한다.

나는 여태까지 전산장비를 구입하면 전산투자라고 하였지 전산비용이라는 말을 사용할 줄은 몰랐다. 새로운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비지니스프로세스리엔지니어링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로 미국의 포드사가 출납업무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단순하고 정확한 회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수백명의 인원을 줄여 75%의 비용 절감을 이룩하는 극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의 최고 상표를 선호하고 공짜를 좋아한다고 한다.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이태원의 많은 상점에서 외국유명브랜드의 이미테이션제품(핸드백등)이 10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방송되었는데 중국, 브라질등과 같이 한국이 상표권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위법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바다.

현재 기업의 전산투자는 실용성보다는 유행에 따르는 다시말해 외국의 유명브랜드에만 종속되어있고 국내외에서 개발된 소중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할줄 모르는 것 같다.

기업의 전산화가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기위하여서는 컴퓨터하드웨어구매→네트웍구축→소프트웨어개발툴 선정→어플리케이션 개발→경영자의 목표달성→고객만족의 순서로 추진되어온 종래의 전산화 추진이 정반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

모든 전산투자는 고객감동전략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경영자가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어 여러 시스템간의 연계성 및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프로세서를 구상한후에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툴을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설계한후에야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구매되어야 하고 이당시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아웃소싱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채가 1996년 11월 현재 천억불(80조원)에 이자만 연간 5조원임을 감안할 때 가정에서의 중형차이상(특히 외제차)의 새자동차 구매는 낭비 즉 비용의 발생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동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등급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과소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되었다.

아껴쓸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지도층에서 모범을 보이고 아껴써야만 한다.

나는 기업이 새로운 유행의 컴퓨터시스템을 얼마를 투자하였다는 외형의 수치만으로는 진정한 투자라고 평가할 수 없고 그 전산시스템이 포드의 출납업무의 개혁경우와 같이 고객중심으로 출발하여 비지니스 프로세스리엔지니어링을 이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하였을 경우 진정한 전산에의 비용이 아닌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본다.

이제 여러분들은 가정의 486컴퓨터를 586펜티엄급으로 올리는 것이 투자인지 비용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